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백지화 파장

6년째 표류해온 광주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결국 백지화 될 위기를 맞으면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00억원대 대규모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고용과 문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가 퇴색할 수 밖에 없고, 법적 부담도 우려된다. 반면 행정 당국은 백지화를 통해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그만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코레일과 시공사 간의 얽힌 매듭과 줄다리기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 불편” vs “일방적 해지”

11일 광주시와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의 주관사인(주)서희건설에 공문을 보내 협약 해지를 의사를 통보했다.

“2013년 7월 협약 후 개발사업에 진척이 없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한 상태여서 사업을 종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의지다.

서희건설 측이 개발사업 진척 방안을 2월1일까지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견이 없는 점도 해지 사유로 밝혔다. 12일까지 여자를 둔 최후통첩이지만 사실상 패트너십을 접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약이 최종 해지될 경우 광주시역대 톱10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7년 2개월, 서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된 지 4년7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되게 된다.

이에 서희 측은 “시의 일방통행”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희 측은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 ▲코레일의 무리한 토지매각 조건 ▲코레일 요구조건 수용시 직면할 적자구조 ▲시와 민간사업자의 절충안 거부 등을 들고 있다.

코레일이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팔고도 추가 발생하는 주차수입도 30년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 무리고, 코레일 환승주차장(391면, 1만7000㎡)의 41%에 달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운영수입 보상까지 요구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 코레일의 요구대로 환승주차장 임대료로 연간 6억원의 임대료만 받을 경우 30년간 운영하고도 건립비용(320억원)의 절반만 회수하는 적자구조여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희 관계자는 “국토부의 KTX

주차장 무상양도·임대료 옥신각신 끝 ‘없던 일’

광주시, ‘미니 용산역’ 대신 주차타워로 급선회

“경제활성 물거품 vs 공기 단축, 시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구역으로 최초 선정됐고 개발계획도 승인됐고 임대료 절충안(연 9억원)까지 제시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 방침을 통보해 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 민간 환승센터 vs 공공 주차타워

2010년 국토부가 선정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역은 전국에 모두 8개. 이 중 신세계가 뛰어든 동대구역만 유일하게 완공됐고, 롯데가 나선 을산역은 올 상반기 첫삽을 뜰 예정이다. 나머지 5곳 중 광주송정역을 제외한 4곳은 죄다 무산됐다. 익산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백기를 들었다.

민간사업자 측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송정 환승센터는 절박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옥신각신 끝에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다. 이로써 개발방식은 복합환승센터에서 주차타워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서희 측은 송정역 일대 19만㎡에 환승, 판매, 업무, 자동차시설과 함께 7200㎡ 규모의 문화시설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협약이 해지되면 코레일 주도로 4만3000㎡ 규모로 주차빌딩과 일부 편의시설만 들어서게 된다. 주차면도 1850면에서 1500면으로 350면 가량 줄어든다. 사업비는 공사비 1600여원을 포함, 2000억원 인박에서 300여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 “경제활성화 물거품 vs 공기 단축, 시민불편 해소”

환승센터에서 주차타워로 변경될 경우 당장 투자액이 7분의 1로 줄어 당초 예상했던 1500~3000개의 일자

리 창출과 랜드마크인 1913 송정역 시장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확충이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서희 측은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기회 상실과 세수감소도 우려된다”며 “이미 수십억원이 투입된 마당에 협약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행정,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혀 후유증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어 광주시장 선거전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소지도 다분하다.

반면 시는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시가 재정적 부담을 덜고 공사 기간도 대폭 짧아져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호남선 KTX에 이어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까지 개통되면서 지난해 송정역 이용객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주차 부족에 따른 집단, 개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며 “고심 끝에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다시 찾아온 지진의 공포 11일 오전 5시 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북구 정량동 상가 외벽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광주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광주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일일 152명, 순찰차 등 장비 28대를 동원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 대책을 펼친다.

특히 정체 예상되는 주요 IC(북광산·광산·신월·동림·서광주·용봉·동광주·문흥) 진·출입로와

송정역·관천터미널,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주변에 교통 경찰관·장비를 배치,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내 도심권 진입 차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에서 정체 구간·우회로를 상시 안내한다. TBN교통방송과 VMS(36개소), 대형 안내전광판 2개소(광주·TG·동광주·TG)를 이용, 실시간 소

통 상황을 전파해 차량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설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립공원묘지, 국립5·18묘지, 영락공원 주변에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100여명을 배치해 성묘 차량 혼잡을 완화하고, 성묘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제수용품 구매 등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주변 지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

신봉우 기자

나주시 ‘외양간 뛰쳐나온 암소’ 탈출소동

11일 오전 10시5분께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대로에서 덩치가 큰 황소 한 마리가 뛰어 다닌다는 신고가 경찰 지구대에 접수됐다.

이 소는 인근 나주 급천면 한 농가에서 키우던 것으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주인이 새끼와 분리하기 위해 축사를 청소하는 틈을 타 밖으로 탈출해 도로를 따라 활보하면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다.

소 주인이 탈출한 소를 따라잡기 위해 인간 힘을 썼지만 고삐 풀린 소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4대를 동원해 도로를 통제하고 소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가 다시 119에 지원을 요청했다.

축사를 나와 한 바퀴 탈출소동을 일으킨 암소는 경찰과 119구조대, 소를 따라 추적해 온 소 주인의 합동작전으로 1시간 여 만에 붙잡혀 무사히 축사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위에서 활개치는 소를 무사히 포획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인에게 다시 인계해 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구속 30대, 출소 후 또 보복범죄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출소한 뒤 옛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보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출소한 뒤 옛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기법상 상해)로 유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 A(36·여)씨 집 앞에서 A씨를 만나 차량에 대운 뒤 얼굴에 소량의 기름을 뿌리고 주먹 등으로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많이 다쳤으며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해 4월께 연인관계였던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휴대전화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말 출소했으며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활 하다 사건 당일 A씨의 집 인근으로 다시 찾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자주 다니던 PC방 인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A씨가 나타나자 “할 이야기가 있다”며 A씨를 자신의 차량에 대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A씨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며 차량에서 뛰어내리자 쫓아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었다.

경찰 신고가 된 것을 인지한 유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한 뒤 대전에 있는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유씨가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곧바로 되는 장비를 A씨에게 지급하는 등 안전한 곳에 보호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자신을 신고한 이유가 듣고 싶어 A씨를 다시 찾았으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파속 실종 60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가 한파 속에 집을 나섰다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59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공터 눈길에서 A(66·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인적이 드문 공터의 눈길에 발자국이 남겨진 것을 보고 수색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지난 7일 오후 1시에 집을 나선 A씨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치매를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길웃을 입지 않은 A씨가 눈길에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지역광고문의: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